

히로시마시 다문화공생의 시 만들기 추진지침 (개정판)

「서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시를 추구하며」

2014년(平成26年) 4월
히로시마시

머리글

1984 년(昭和 23 年)에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어,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1979 년(昭和 54 年)에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였고, 그 후 ‘난민조약’*과 ‘인종차별 철폐조약’* 등 인권에 관한 많은 조약에 가입하는 한편, 1997 년(平成 9 年) 7 월에는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 년’* 국내행동계획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요과제로 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을 배제하는 계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소자, 고령화사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의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일본의 총무성은, 최근의 외국인시민 증가나 정주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인과 지역주민의 공생을 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다문화공생추진플랜(가칭)’을 2005 년도(平成 17 年度)에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시에서도 2004 년(平成 16 年) 12 월말 현재 15,197 명의 외국적(무국적을 포함) 사람들이 히로시마시민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 문화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히로시마의 시를 지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의한 불안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외국인시민도 살기 좋은 시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히로시마 비지터즈 인더스트리 전략’을 책정하여, 많은 외국인을 히로시마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외국인관광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들 단기체재자에게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책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본 시가 추진하는 시책이나 관계기관에서 여러가지 노력이 전개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문화공생사회*는 물론이고 외국인관광객 등에게도 매력 넘치는 히로시마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 년(平成 18 年) 4 월

히로시마시장 아키바 타다토시(秋葉 忠利)

차 례

I 지침 책정의 경위	1
II 현황과 과제	3
1 인구 추이	3
2 생활, 의식실태 조사결과	4
3 시책별 현황과 과제	8
4 특별영주자, 뉴커머별로 본 현황과 과제	14
III 다문화공생의 시 만들기의 목표와 추구하는 시점	15
IV 다문화공생의 시 만들기를 향한 앞으로의 노력	16
1 생활관련정보의 홍보와 상담체제의 정비	16
2 생활지원, 행정서비스의 제공	18
3 인권교육, 계발의 추진	19
4 다문화공생사회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20
용어해설	21

본문 중 *를 표시한 용어는 페이지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개정판에 관하여

2006 년도에 책정된 ‘히로시마시 다문화공생 도시 만들기 추진 지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 따라 내용 중 ‘II~IV’의 일부를 개정했다.

- 1 2012 년도에 실시한 ‘히로시마시 외국인 시민 생활·의식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과제 및 외국인 시민의 요망 등의 정리
- 2 지침책정 이후로 새로운 시책이나 폐지된 시책 정리
- 3 앞으로의 다문화 공생 도시 만들기를 생각한 새로운 대책 검토

I 지침 책정의 경위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자수는 1984년(昭和 59年)(12월 말, 이하 동등)에 약 84만 1천명에서 2003년(平成 15年)에는 약 191만 5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히로시마시는 전국적으로 비교하여 그다지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1984년(昭和 59年)에 약 1만 1,855명이었던 외국인등록자수가 2004년(平成 16年)에는 1만 5,197명으로 28.2% 증가하였고, 전 인구의 약 1.33%, 75명에 한 명꼴의 외국인 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시에서는 1992년도(平成 4年度)에, 국제적 인권문제(외국인시민의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함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창구에 외국어 게시판의 설치, 제도적으로 무연금자에 대한 복지급부금제도의 창설, 시직원 채용시의 국적요건 완화와 외국인 시민노동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태세 확립을 위하여 봉사자 양성사업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1997년도(平成 9年度)에, 외국인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히로시마시 외국인시민과의 간담회’(의장 야마모토 케이조 히로시마슈도대학 법학부교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었는데, 외국인을 하나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특히 ① 외국인시민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 ② 외국인시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③ 외국인시민정책의 추진계획을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1999년(平成 11年)에 책정한 제 4차 히로시마시 기본계획에서, ① 외국인 시민이 살기 좋은 시 만들기 추진, ② 다문화공생의식의 고양을 외국인시민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장으로 2001년도(平成 13年度)에 ‘히로시마시 외국인시민정책 간담회’*(의장 피터 골즈베리, 영국, 히로시마대학 종합과학부 교수, 이하 간담회라고 함)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시민생활의 실태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平成 14年度)에 ‘히로시마시 외국인시민생활, 의식실태조사’(실태조사위원회 위원장 사다마츠 아야, 히로시마국제학원대학 조교수, 이하 실태조사라고 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결과와 '간담회'의 협의 등을 종합하고, 시청내의 '인권시책관계 과장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외국인시민이 살기 좋고,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 있는 시 만들기를 추진함과 동시에,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히로시마시 다문화공생의 시 만들기 추진방침'을 책정하여, 폭넓고 구체적인 시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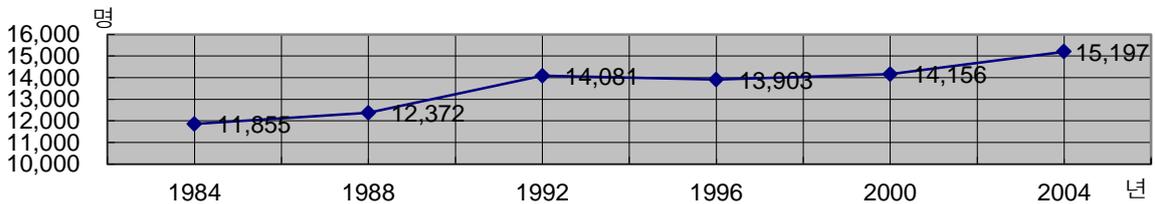
II 현황과 과제

1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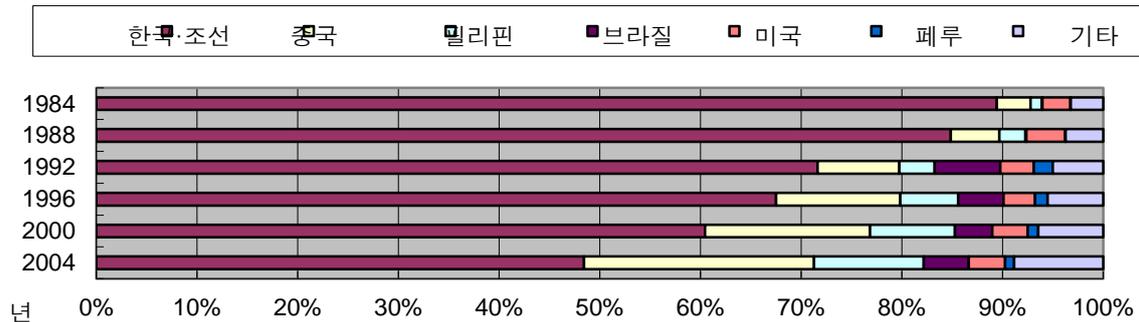
외국인시민은 크게 특별영주자*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의 자손)와 뉴커머* (특별영주자 이외의 외국인)로 나뉘어 있습니다. 뉴커머가 증가하기 시작한 20년 전의 1984년(昭和 59年) 12월 말, 히로시마시에는 모두 11,855명의 외국인 시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국적별(출신지별) 내역으로는 한국·조선이 10,640명(외국인 합계에 대한 비율 89.4%), 중국 398명(3.4%), 미국 328명(2.8%), 필리핀 130명(1.1%), 브라질 10명 (0.1%) 기타 385명(3.2%)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 외국인 시민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990년대는 보합상태를 보이다가, 2004년(平成 16年) 12월 말 현재는 15,19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별(출신지별)로는 한국·조선이 7,362명(48.4%), 중국 3,469명(22.8%), 필리핀 1,660명(10.9%), 브라질 678명(4.5%), 미국 548명(3.6%), 기타 1,480명(9.8%)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1)

(그림 1) 히로시마시 외국인등록자수의 추이



히로시마시 외국인등록자의 국적별 구성비 추이



1984년(昭和 59年)부터 2004년(平成 16年)사이의 변화로는, 외국인시민 합계 3,342명(28.2%)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적별(출신지별)로 보면 중국 3,071명, 필리핀 1,530명, 브라질 668명이 각각 증가한 것에 비하여,

한국·조선이 3,242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시민 합계에 대한 국적별(출신지별) 비율도 크게 변화하여, 한국·조선이 89.4%에서 48.4%로 감소, 중국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이 10.6%에서 51.6%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관광객도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21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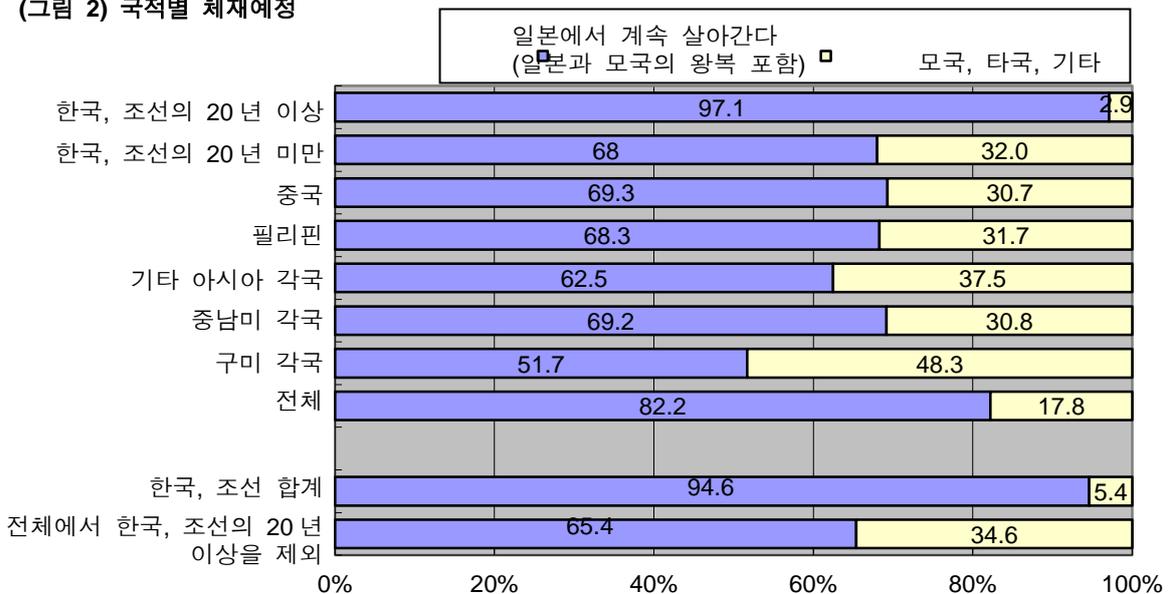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본 시는 '히로시마 비지터즈 인더스트리 전략'*을 책정하여 많은 관광객을 히로시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생활, 의식실태 조사결과

이러한 외국인시민의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외국인시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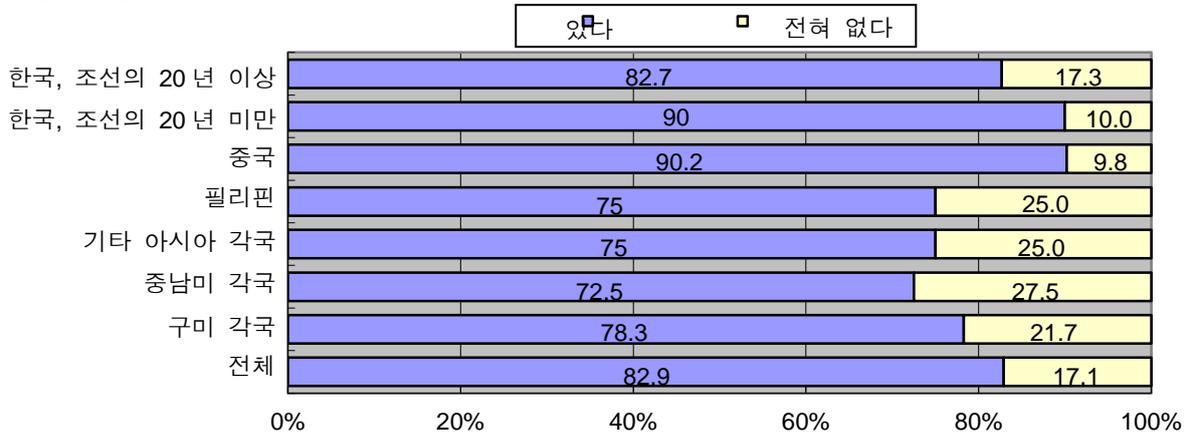
외국인시민이 일본에서 체재할 예정을 국적별로 보면, 국적이 한국·조선이며, 20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특별영주자에 해당)의 97.1%가 '일본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응답했으며, 전체의 통계에서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뉴커머도 65.4%가 '앞으로도 일본을 생활의 거점으로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림 2)

(그림 2) 국적별 체재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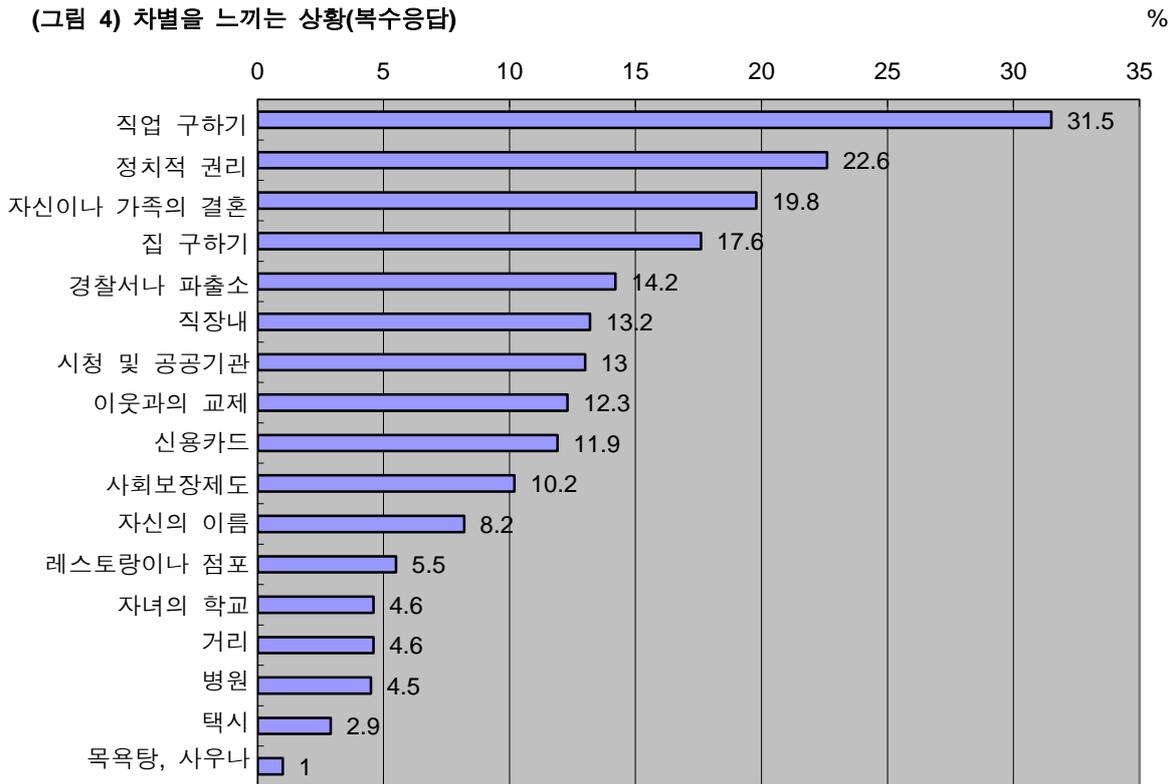


차별체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직업을 구할 때나 정치적 권리, 결혼, 집을 구할 때 외국인이라는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2.9%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림 3), (그림 4)

(그림 3) 국적별 차별체험



(그림 4) 차별을 느끼는 상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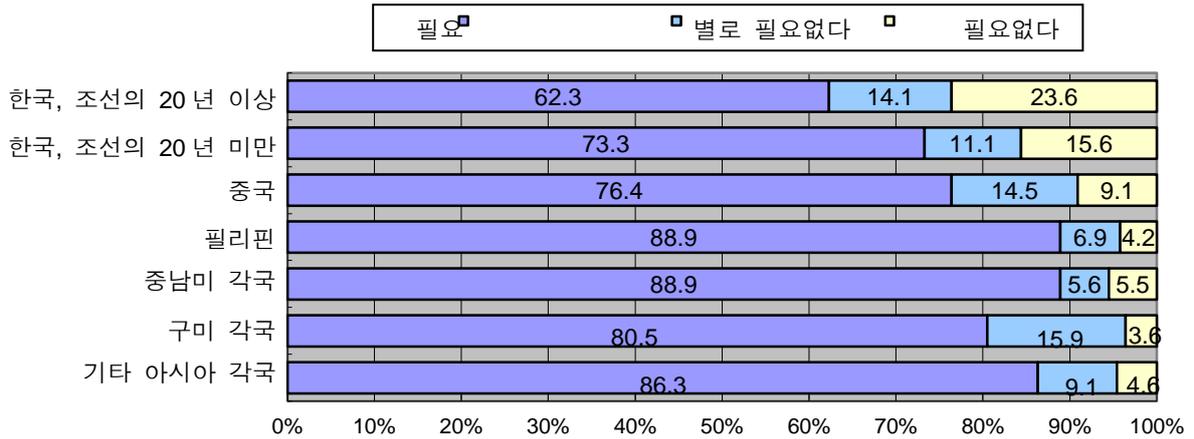


또한 행정창구나 상담창구에서 다국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활상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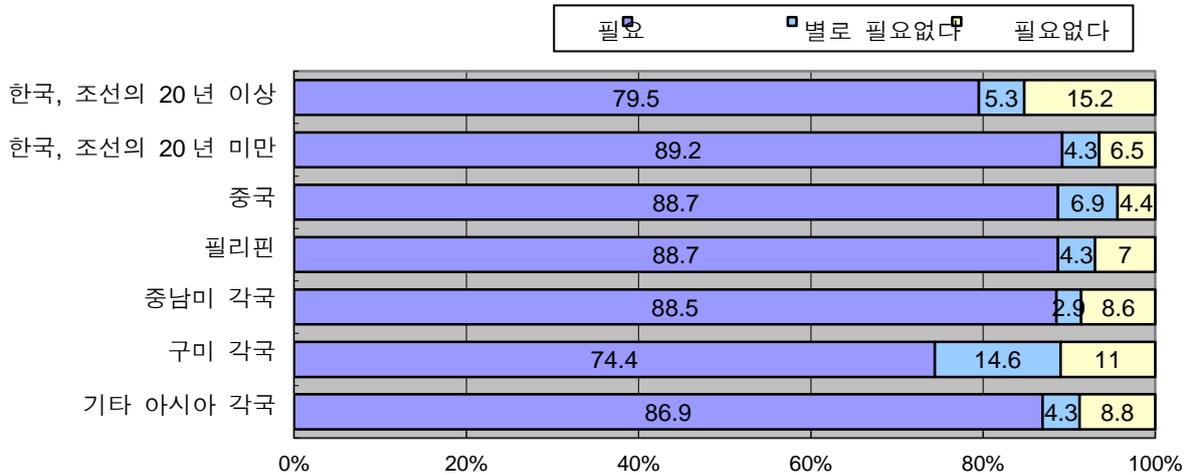
없다는 점 등, 다국어로 가볍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림 5), (그림 6)

(그림 5) 국적별 행정창구에서 외국어 대응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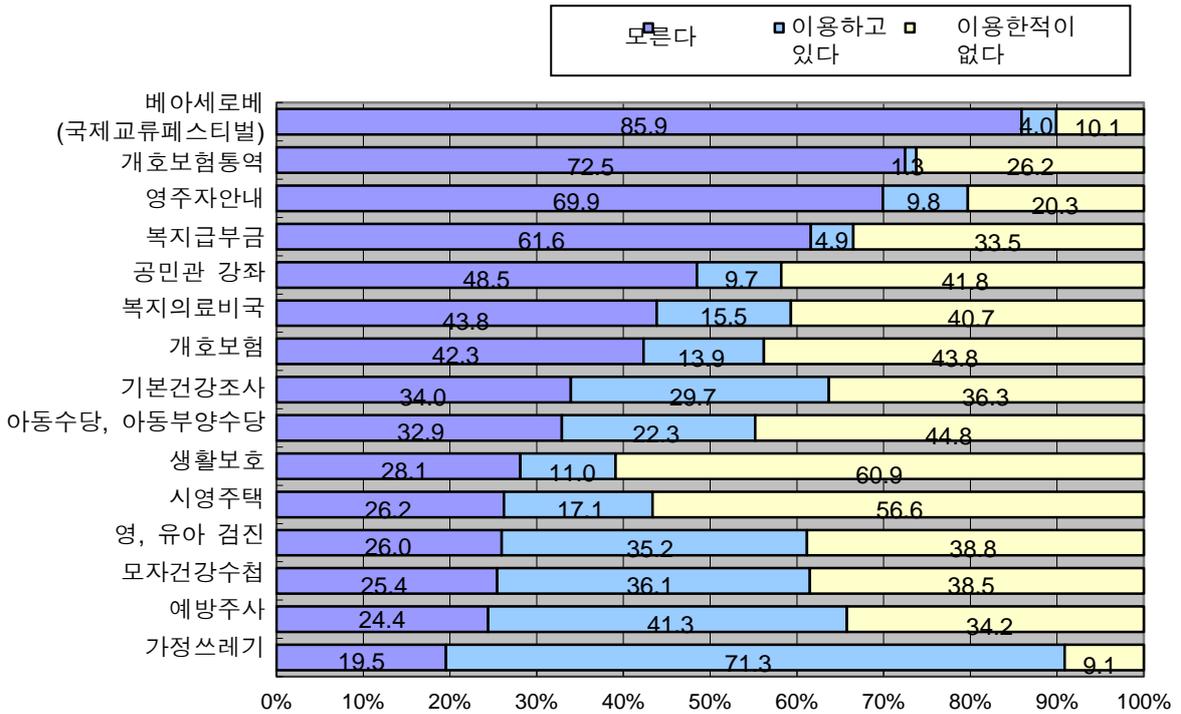


(그림 6) 국적별 상담창구에서 외국어 대응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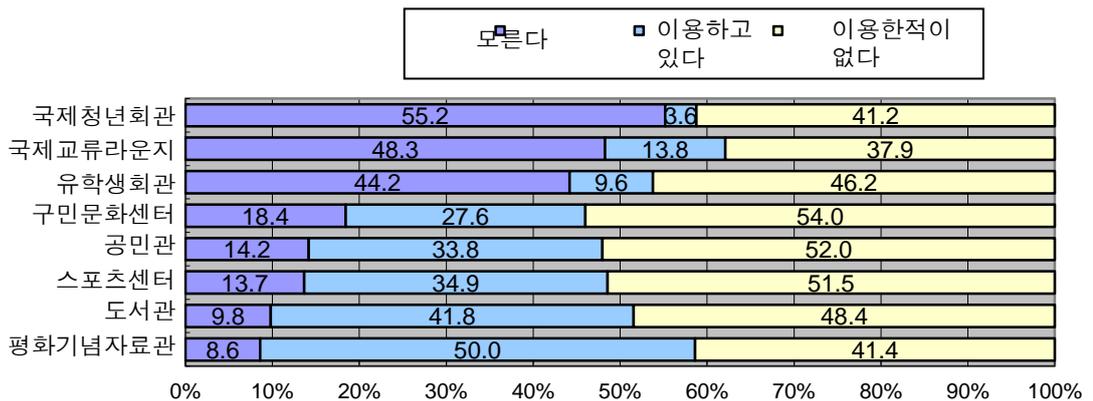


그 외에도 히로시마시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 등의 행정시책(행정 서비스)이나 국제교류사업 등을 실시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시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림 7), (그림 8)

(그림 7)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상황



(그림 8) 공공시설의 인지도와 이용상황



더욱이 교통기관이나 병원, 고용과 세금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충분히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3 시책별 현황과 과제

지금까지 히로시마시가 추진해 온 외국인시민정책을 구분하여 검증해보면, 다음과 같은 현황과 과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제공과 상담

히로시마에서는 홈페이지 자동번역 서비스 기능을 도입, 각 공공시설의 홈페이지와 팜플릿의 다언어화, 외국인 시민을 위한 생활가이드북의 작성, 배포, DV 방지, 구급방재, 취학 안내 등의 팜플릿의 다언어화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국제회의장의 국제교류라운지에서는 ‘히로시마시 외국인 시민의 생활상담코너’를 설치하고 영어, 중국어 등의 다언어로 생활에 관한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 외에 전화(3자 통역 시스템: 트리오 폰)로 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밖에 10개 언어로 통역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재)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의 홈페이지에 5개 언어로 생활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것 외에 ‘히로시마 시민과 시정’을 발췌하여 게재한 ‘HIRO CLUB NEWS’ (영어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념자료관에서는 10개 언어로 된 팜플릿과 17개 언어의 음성 안내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포켓판 히로시마평화정보’를 4개 언어로, ‘가정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리는 법’을 5개 언어로 작성하였고, 도로표지에도 로마자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시의 다언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점(인지도: 생활상담코너 34.9%, 트리오 폰 17.5%, 생활가이드북 35.1%)이나 정보제공 때 다언어화도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시민에 대한정보의 다언어화와 제공장소,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시 홈페이지’와 히로시마 현 등의 홈페이지와 상호 링크를 하는 등의 정보네트워크와 공공시설 관내 안내표시의 다언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관광객을 히로시마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을 비롯하여 단기체재자에게 맞는 안내기능, 관광안내판, 관광팜플릿 등의 정보제공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2) 보건, 의료, 복지, 연금

개호보험인정조사와 생활보장 절차 시에 통역자를 파견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널리 알리며 보건사업, 복지사업에 관계하는 외국인 시민의 요망과 실태를 반영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로는 ‘모자건강수첩’을 8 개 언어로 교부하고 있으며, ‘영유아 검진질문표’(5개 언어) ‘보육원 안내’ 6개 언어, 개호보험제도 안내팜플릿(3 개 언어)과 ‘생활보장 안내’(중국어) 등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법상(구법을 포함), 수급자격이 없는 외국인 시민 및 귀국자에 대하여 히로시마시가 독자적으로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제도안내의 다언어화, 읽고 쓰기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고령자의 개호에 관한 상담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관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장소를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방재, 구급

‘119 번 긴급통보 안내비디오’를 5 개 언어로 작성하여 대여해 주고 있으며, 구급, 방재용 팜플릿(5 개 언어)을 작성 배포하고, 15 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구급대응카드’를 비치, 피난장소표시를 다언어로 표기, 외국인 피난자 지원을 위한 ‘외국인 피난자 대응 시트’(6 개 언어: 쉬운 일본어(외국인도 알기 쉬운 일본어 표현. 이하 같음)를 포함) 작성과 홈페이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에서는 외국인 시민 참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단을 외국어와 히라가나 토를 달아 배포하며 회장에서도 표시를 외국어로 함께 적거나 히라가나 토를 달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시 긴급피난 대피시설 표기를 다언어(5 개 언어)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시민이 지역맨션 등의 방재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야 하고, 재해시의 정보나 피난권고, 지시 등을 외국인시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한 뉴커머와 외국인관광객을 비롯한

단기체재자에 대해서는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과 피재 시의 상담대응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4) 주택, 취로

주택과 취로문제는,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지역사회와의 공생으로 연결하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주거형태는 소유주택이 34.0%, 임대주택이 51.0%, 사택, 사원기숙사가 9.4%, 학생기숙사가 0.8%입니다. 그 중 임대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내역은 공영주택이 18.0%, 민간주택이 33.0%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은 생활, 취로 등의 거점이 되는 곳이므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시영주택 입주자의 '생활안내' 등을 3개 언어로 작성하고 있지만, 시영주택에 관하여 더욱 다언어에 의한 홍보를 충실화하여 외국인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관습이나 문화에 익숙지 않은 뉴커머가 민간주택에 입주할 때 도움이 되는 계약시의 보증금, 사례금 등 일본의 관습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과 취로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현이 연계하여 입주와 취직, 임금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업자의 의식을 계발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취로기회 등에 관해서도 정보제공에 노력하여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 직원 채용은 소방직을 제외하고 수험자격의 국적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5) 교육

실태조사에서는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울기회가 필요하다는 요망이나 자녀진학, 장래 취직에 대한 불안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상담원의 배치나 귀국, 외국인 아동·학생의 일본어 지도를 시행하며, 히로시마시립대학의 출원자격에 외국인학교의 졸업을 독자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학의무가 없는 외국인아동·학생의 취학 상황에 관해서는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태도 있으며, 또한 취학 지원에 대한 요망이 있습니다. 더불어 학부모에 관해서는 일본어를 할 수 없어서

자녀 학업을 도와줄 수 없거나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히로시마시에서는 모든아동·학생에게 ‘확실한 학력’, ‘풍요로운 정신’, ‘건강한 신체’를 키워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해서는 먼저 취학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취학실태 등을 고려한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학습, 생활, 진로에 관한 상담체제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교육 면에서는, 일본의 문화나 제도, 관습 등에 익숙해질 기회가 적고 생활에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새로 이주해 온 외국인을 위하여 일본어교실과 국제이해강좌, 국제교류사업 등을 공민관에서 개최함과 동시에 도서관, 국제청년회관에서도 외국어 도서의 대여 열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이나 사업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PR 방법이나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에 충실을 기하고, 외국인 시민의 국적이 다양화되어 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다문화공생에 관한 사업의 시행, 자료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교실의 확충 등을 검토하여 일본인시민과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모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교육을 자녀가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싶다’ ‘가족이나 친척, 선생님 이외에 자녀교육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인권의식의 고양과 상호이해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의 80.0%의 사람들이 많은 적든 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구미 각국과 중남미 각국, 필리핀, 기타 아시아 각국(한국·조선, 중국,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 이하 같음)의 뉴커머들은 직업 구하기, 직장, 신용카드 신청, 주거지 구하기 등으로, 또한 특별영주자 등은 정치적 권리나 일본인과의 결혼, 직업 구하기, 주거지 구하기 등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 속에서도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 체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외국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의 외국인에 대한 의식의 문제입니다.

2012 년도에 히로시마시가 실시한 시민의식 실태조사에서도 다문화공생의 사고방식에 시민의 81.7%가 '동감한다' '어느 쪽이냐고 하면 동감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편, 6.0%의 시민이 '동감할 수 없다' '어느 쪽이냐고 하면 동감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주로 '생활습관이나 모럴·매너에 관한 것' '국제문제에 관한 것' '외국인과 교류가 없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일본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발언이나 행동들이 눈에 띄입니다.

히로시마시에서는 여러 종류의 팜플릿 등 계발자료를 배포하고, 강연회나 인권 패넬전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공민관 등에서 국제이해강좌나 인권교육강좌, 자매·우호 도시의 날이나 국제교류·협력의 날에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직원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시민의 증가나 국적의 다양화에 따라, 시민 및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외국인 시민의 인권문제나 다문화공생에 대하여 한층 이해를 깊이면서 서로 인정하는 기회를 확충하고 내용도 충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유학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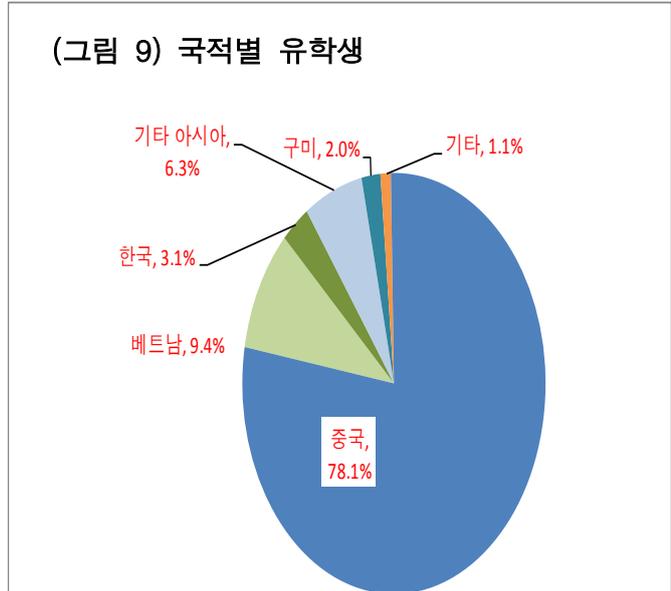
유학생은 장래에 세계의 각국과 일본의 다리역할을 하며, 모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짊어지고 나갈 유능한 인재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8 년에 일본을 세계에 개방된 국가로서 아시아, 세계와의 사이에 물건, 사람, 자본, 정보의 흐름을 확대하는 '세계화 전략'을 전개하는 일환으로서 2020 년을 전망으로 유학생 30 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유학생 30 만 명계획' 골자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① 일본유학의 권유, ②입시, 입학, 입국 절차의 개선 ③대학 등의 국제화 추진, ④수용환경조성, ⑤졸업, 수료 후 사회 지원 추진 방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3년 3월말 현재, 본 시에는 1,208명의 유학생이 살고 있으며, 국적별 비율로는 중국 78.1%, 베트남 9.4%, 한국 3.1%, 기타 아시아 각국 6.3%로,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9)

히로시마시에서는 2001년(平成 13) 4월에 유학생회관을 개설하여 주거와 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가능한 인원은 100세대입니다. 그 외의 많은 유학생은 학생기숙사나 기타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재)히로시마평화문화센터는 ‘히로시마 유학생기금’을 설치하여 사비 유학생에게 ‘히로시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1년 4월에는 히로시마 현내에의 지자체, 대학 등이 일체가 되어 유학생 유치 촉진, 학업·생활 지원 등을 하기 위해 히로시마현 유학생 활약센터를 설립하여 히로시마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단체의 유학생 생활지원이나 이벤트 실시 등 유학생과 시민의 교류를 촉진하면서 생활상담이나 취업지원세미나 실시 등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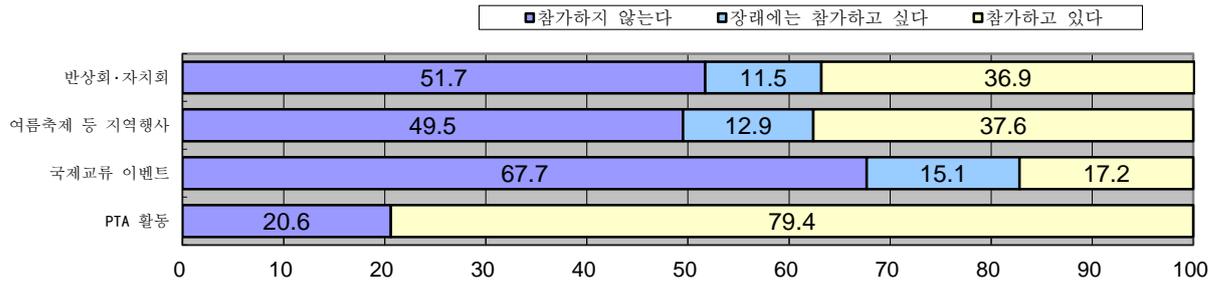
(8) 사회참가

외국인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의 캠페인이나 시의 시설에 관한 시민의식 앙케이트조사는 외국인시민을 포함하여 조사하며,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정운영사항의 국민투표에는 ‘히로시마시 주민투표조례’에 근거하여 18세 이상의 특별영주자나 영주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참가 면에서는 외국인시민의 51.7%가 마을회나 자치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등, 외국인시민과 지역주민의 공생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림 10) 단체나 각종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지역행사 49.5%, 국제교류 이벤트

67.7%, PTA 활동 20.6%) , 지역단체 가입이나 지역활동 참가를 촉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시민이 지역활동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정비와 외국인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의 장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면서 그 정보를 널리 시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10 단체와 각종 활동에 대한 참가도



4 특별영주자, 뉴커머별로 본 현황과 과제

제 2 회 실태조사결과, 히로시마시 다문화공생시민회의(구 히로시마 시민정책간담회)의 의견 및 최근의 사회정세를 고려하여, 특별영주자와 뉴커머로 크게 나눠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1) 특별영주자

- ① 연금이나 개호보험 등 복지행정서비스나 생활지원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요구된다.(제도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 개호보험통역 71.5%, 복지급부금 61.3%, 복지의료비 44.8%)
- ② 무연금자에 대한 법 제도의 개선이나 히로시마시 독자적인 지급제도의 충실이 요구된다.
- ③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읽고쓰기가 자유롭지 못한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개호 등에 충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읽기가 자유롭지 못한 비율 2.4%, 쓰기가 자유롭지 못한 비율 3.5%)
- ④ 주민투표조례제도와 같은 지방참정권의 취득과 간편하게 행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보장이 요구됨과 동시에 지역활동 참가가 촉진되도록 정보제공의 충실화가 요구된다.
- ⑤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확충이 요구된다.

(2) 뉴커머

- ① 행정정보나 생활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층 더 알릴 필요가 요구된다. (중국 귀국자와 기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각종 제도에 관한 인지도가 낮다.)
- ② 다언어에 의한 상담창구가 정비되어있지 않다.
(중국 귀국자, 기타 아시아 각국, 중남미 각국, 구미 각국의 사람들은 일본어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 일본의 각종 제도 절차에 익숙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창구에서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기타 아시아 각국이 56.9%, 중남미 각국이 54.2%, 구미 각국이 53.8%, 중국 귀국자가 51.9%)
- ③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 관습, 문화 등을 습득할 학습기회가 있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가하기 쉬운 환경정비가 요구된다.
(일본어 교실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고 대답한 이유로 '일이나 자녀 키우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다.', '(일이 바쁜 것과 관련되어)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일본어 교실에 관한 정보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일본어 교실이 없다.' 등이다.)

- ④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 참가하기를 꺼리거나 이웃 주민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기 어렵다. 외국인 시민이 지역행사 등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중국 귀국자와 중국 귀국자 이외의 중국, 필리핀, 기타 아시아 각국의 사람은 지역행사에 대해서 '현재 참가하고 있지 않으나 장래에는 참가하고 싶다'가 20%를 넘고 있다.)

- ⑤ 재해 시의 구급, 의료 시 등에 다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체제 정비가 요구된다.

III 다문화공생의 시 만들기의 목표와 추구하는 시점

외국인 시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고 국적과 언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인 시민이 살기 편하게 배려한 시 만들기 추진’과 ‘시민의 다문화공생의식 고양’을 목표로 다음 시점에서 추진해 나갑니다.

- 1 일본어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시민이나 외국인관광객 등의 단기체재자에게도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일본어와 다언어에 의한 생활 관련 정보의 주지와 상담체제의 정비에 노력합니다.
- 2 외국인 시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히로시마에서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생활지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노력합니다.
- 3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하여 각종 인권문제,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학습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사업·계발사업 추진에 노력합니다.
- 4 외국인 시민의 사회참가의 촉진과 시민의 공생의식 고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시민이 참가하기 쉬운 지역활동과 다문화공생에 관한 사업 등 시민이 상호 간 교류·이해할 기회의 제공에 노력합니다.

IV 다문화공생의 시 만들기를 향한 앞으로의 노력

1 생활관련정보의 홍보와 상담체제의 정비

(1) 정보제공과 상담

- 가) 히로시마시의 홈페이지를 외국인시민의 생활면에서의 필요도와 우선순위를 내용별로 고려하여 정보의 다언어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관광객을 비롯하여 단기체재자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다언어화합니다.
- 나) 정보제공수단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정보제공방법과 내용을 충실화합니다.
- 다) 외국인시민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한 '생활가이드'를 다언어로 제작, 배포합니다.
- 라) 각종 인쇄물 등에 대해서도 다언어화나 히라가나의 토를 달도록 하면서 알기 쉬운 일본어에 의한 정보제공을 검토합니다.
- 마)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시민 종합상담창구를 충실화합니다.
- 바) 국제교류라운지를 널리 알리고, 3자 통화시스템의 활용촉진과 정보제공, 상담창구를 충실화합니다.
- 사)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봉사통역자를 파견하는 제도를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 아)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NPO*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시민의 요구에 대응한 보다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자) 외국인관광객을 비롯한 단기체재자가 히로시마에서의 체재에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 식사, 숙박 등의 정보제공을 충실화합니다.
- 차) 도로안내, 거리표시, 시설 내외의 표시 등에 다언어화를 추진합니다.

(2) 보건, 의료, 복지, 연금

- 가) 각종 보건사업 등에 대하여 다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합니다.
- 나) 보건사업, 복지사업에 통역자를 파견하는 등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검토합니다.

- 다) NPO 등과 연계하여 의료통역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라) 각종 언어로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마) 병원내의 안내표시 등 다언어화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회 등과의 연계에 노력합니다.
- 바) 일본연금기구와 연계, 협력하여 공적연금에 가입을 촉진하며, 다언어로 제도안내책자를 작성하여 제도 홍보에 주력합니다.
- 사) 외국인시민의 DV* 피해자의 인권과 DV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DV에 관한 상담체계 등을 검토합니다.

(3) 방재, 구급

- 가) 119 통보방법과 방재정보를 포함한 안내책자를 충실화하여, 외국인관광객을 비롯한 단기체재자, 외국인시민, 숙박시설에 제공합니다.

(4) 주택, 취로

- 가) 시영주택의 입주에 대하여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을 충실화합니다.
- 나) 계약에 관한 관행 등 주택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관계자와 연계하여 검토합니다.
- 다) 외국인시민의 취로를 촉진하기 위하여, 취로조건이나 임금 등 노동에 관한 정보를 정부, 현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5) 교육

- 가) 외국인 시민에 대한 취학안내와 취학지원제도 등의 교육 관련 정보에 관하여 정보제공의 기회와 장소를 확충하고, 다언어화나 히라가나 토를 달도록 합니다.
- 나) 도서관에 외국어 신문과 잡지 등을 충실하게 준비합니다.
- 다) 구스포츠클럽 등의 팜플렛(시설개요)를 다언어화합니다.

2 생활지원,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교육에 관한 지원

(1) 보건, 의료, 복지, 연금

- 가) 무연금 외국인고령자, 장애자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 나)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과 연계하며 급부금제도 충실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도 대상자에게 홍보합니다.
- 다) 긴급의료에 드는 미불의료비의 보충조치*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현과 연대, 협력하여 검토합니다.

(2) 방재, 구급

- 가) 지역과 맨션단위로 이루어지는 방재 훈련에 참가를 촉진합니다.
- 나) 재해시의 정보와 긴급권고, 지시 등의 전달수단에 관하여 유효한 정책을 검토합니다.

(3) 취로

- 가) 공무원채용시험과 교원채용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합니다.

(4) 교육

- 가) 귀국,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일본어 지도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도자의 육성과 확보에 노력하며, 일본의 생활문화와 습관 등에 대한 이해촉진과 기초적·기본적인 학습 내용이 정착되도록 일본어 능력 향상을 기합니다.
- 나) 외국인학교의 원아, 유아, 아동,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취학지원 등의 요구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검토합니다.
- 다) 외국인아동·학생이 취학하지 않거나 등교하지 않는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 라) 외국인 학생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상담체제정비에 노력하면서 지도하는 교직원의 연수를 충실화합니다. 또한, 의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아동·학생의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향상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합니다.
- 마) 정부와 현과 연계하여 외국인학교의 졸업자격이 진학, 취업에 유효하게 다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바) 아동이 자신의 모국이나 외국의 언어, 문화를 배우거나 외국 국적의 학부모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확보를 검토합니다.

(5) 유학생지원

- 가) 유학생의 주거지원을 계속 실시합니다.

- 나) '히로시마 유학생기금'을 활용한 생활지원을 계속하면서 유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다) 생활상담과 취직지원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3 인권교육, 계발의 추진

(1) 주택, 취로

- 가) 정부, 현과 연계하여, 민간주택에 대하여 외국인의 입주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택지, 건물취급업자 등의 계발에 노력합니다.
- 나) 정부, 현과 연계하여 외국인에게 노동조건이 공평,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외국인고용사업자에 대한 계발에 노력합니다.

(2) 교육

- 가) 외국인이 가진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나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대한 학습 등, 인권존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에 노력합니다.
- 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교직원의 의식계발, 지도력 향상에 노력합니다.

(3) 인권의식의 고양과 상호이해를 촉진

- 가) 인권계발 팸플렛의 작성, 배포, 강연회의 개최 등 인권계발사업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계발지도원에 의한 기업, 단체 등의 인권계발기회를 확충합니다.
- 나) 정부, 현, 인권옹호위원, 변호사회 등과 연계하여 인권문제의 계발에 노력합니다.
- 다) 사회 변화에 대응한 직원연수를 시행하고 직원의 의식고양에 노력합니다.

4 외국인 시민의 사회참가 촉진과 공생의식의 고양

(1) 교육

- 가) 히로시마시 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권교육, 국제교류, 국제이해교육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 나) 사회교육시설을 널리 알리며, 외국인의 일본어능력 향상과 일본의 생활문화, 관습 등의 이해를 촉진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 다)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 제공에 노력합니다.

(2) 인권의식의 고양과 상호이해 촉진

- 가) 다문화공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기업, 단체 등에 계발활동을 하며, 다문화 공생에 관한 이해나 교류방법을 검토합니다.
- 나) 유니버설디자인*을 행정, 기업 등에 보급합니다.
- 다) 시민간의 상호교류사업을 추진하며, 각 사업에 외국인 시민의 참가를 한층 촉진합니다.
- 라) 행정, 시민 및 봉사단체 등과 연계를 강화합니다.

(3) 유학생지원

- 가) 유학생이 일본어와 생활관습,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합니다.
- 나) 유학생과 지역주민과의 교류기회를 확충합니다.

(4) 시민정책의 추진과 사회참가

- 가) 외국인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시민의 의견 등을 듣는 기회와 장소 제공에 노력하며,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나) 지역이벤트, 교류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시민이 지역활동에 참가하기 쉽도록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지역사업 실시에 외국인 참가기회를 확충합니다.

용 어 해 설

세계인권선언 (머리글)

인권 및 자유를 존중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언한 것.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1948년(昭和 23年) 12월 10일 제 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50년(昭和 25年) 제 5회 국제연합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하여 세계적으로 기념행사를 열 것을 결의하였다.

국제인권규약 (머리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조약화한 것. 1966년(昭和 41年) 12월의 UN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의 세 조약의 총칭. 일본은 A 규약, B 규약에 대해서는 1979년(昭和 54年) 6월에 비준하였다.

난민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머리글)

1951년(昭和 26年)에 '난민 및 무국적자에 관한 국제연합전권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난민의 정의, 난민보호를 위한 행정조치, 송치, 송환의 금지원칙이 정해졌다.

일본은 1981년(昭和 56年) 10월에 비준하여, 이것을 계기로 '출입국관리령'을 개정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으로, 난민 인정수속을 결정하였다.

인권차별철폐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머리글)

1965년(昭和 40年) 12월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조약. 체결국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정책 등을 적법한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수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은 1995년(平成 7年) 12월에 비준하였다.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내 행동계획 (머리글)

1994년(平成 6年) 12월의 국제연합총회에서 1995년(平成 7年) ~ 2004년(平成 16年)까지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으로 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권교육을 '지식과 기술의 전수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수, 보급 및 홍보에 대한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각국에 여러가지 활동을 추진하도록 제창하였다. 일본에서는 1997년(平成 9年) 7월에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대 행동계획 추진본부(본부장:내각총리대신)로부터 제출되었다.

다문화공생사회 (머리글)

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히로시마시 외국인시민 시책 간담회 (1 페이지)

외국인시민의 시정참가를 촉진하고, 시민과 행정, 외국인시민과 일본인시민의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공생사회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平成 13年) 5월에 설치되었다. 외국인시민 시책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해 협의하여 시장에 보고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영주자 (3 페이지)

외국인의 활동이 일본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외국인의 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중,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에 재류하던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자들에게, 그 배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정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1991년(平成 3年) 11월에 시행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정된 재류자격으로, 활동과 기간에 제한이 없다.

뉴커머 (3 페이지)

앞에서 서술한 특별영주자 이외의 외국인을 말한다. 1990년(平成 2年)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에 따라 브라질이나 페루 등의 일본계 이민자손의 2 세, 3 세에 대해서는 단순노동을 포함하여 취로에 제한이 없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아시아, 중남미 각국 등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취학생, 문화 학술 경제관계자, 중국 귀국자의 가족, 외자계기업 주재원 등이 증가하고 있다.

히로시마 비지터즈 인더스트리 전략 (4 페이지)

관광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목적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방문자(비지터즈)와 시내에 재주하는 시민까지도 시야에 두고, 매력있는 도시만들기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종합적,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히로시마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시청내의 검토팀이 제안으로써 2003년(平成 15年) 3월에 정리하였다.

전략에서는 ‘관광객 배증’이라는 기본목표와 함께, 방문자의 시점에서 도시기능에 충실을 기하고, 시민이 주역인 관광, 교류촉진 등을 기본 방침으로 들고 있다.

히로시마시민 투표조례 (13 페이지)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정 운영상의 중요사항(시 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의회 해산청구, 의원, 시장의 해직청구 등), 특정 시민 또는 지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제도. 투표자격은 만 18 세 이상의 일본인과 영주 외국인으로, 각각 계속해서 3 개월 이상 히로시마시에 주민기본대장 및 외국인등록표의 기재와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대상.

NPO (민간 비영리단체, 민간공익조직) (18 페이지)

Non Profit Organization(논 프로핏 오거나이제이션)의 약자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립된 활동조직. 재정규모가 작은 비영리조직의 법인격 취득을 쉽게하는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 (NPO 법)이 1998년 (平成 10年) 12월에 시행되었다.

DV (19 페이지)

Domestic Violence(도메스틱 바이올런스)의 약자.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파트너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당하는 폭력을 말한다. 때리거나 차는 등 '신체적 폭력'만이 아닌 교우관계나 전화 내용을 일일이 감시하는 등의 '정신적 폭력', 원하지 않는 성행위의 강요 등 '성적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1년(平成 13年)에는 DV 방지법(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보호명령'이 삽입되었다.

긴급의료에 관한 미불의료금의 보충조치 (20 페이지)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단기체재자 등이, 불의의 사고나 병 등으로 구명구급센터에서 긴급 치료를 받고, 자기변제를 할 수 없었을 경우, 그 미불의료비에 대하여 정부, 현, 구명구급센터 설치자가 1/3씩 부담하는 제도

유니버설 디자인 (23 페이지)

연령과 성별, 신체적능력, 국적이나 문화 등 사람들의 여러가지 특징이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한 시가지 만들거나 물건 만들기, 구조 만들기를 추진하자는 생각.

히로시마시에서는 2002년(平成 14年) 10월에 정부, 현이 참가하여 '히로시마시 유니버설 디자인 협의회'를 설치하여, 누구나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기반, 생활기반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